

6



전북한 위무성 제1부장 안운경 선생님

안운경 선생은 1908년 1월 8일에 원종변강
 연해구 백씨예촌구역 나고르나야촌 빈농민가정
 에서 탄생하였다. 1916 복학 시작하여 나고르나야
 사립학교에 다니기 시작하여 1921년에 하급하였다.
 1921년부터 연해구 블라지워브도크 공장에서 공부하기
 시작하여 1927년에 퇴하였다. 고종은 나훈후 안선생
 은 1927년부터 1931년 까지 백씨예촌 농민청년회
 중에서 교원으로 일하시었다. 1931년에는 블라지워브
 도크 새로 열린 한인 사범대학에 입학하여, 1936년
 에 퇴하였다. 안선생은 사대 유물학부를 마쳤한다
 음 해산 공장에서 부장 교원으로 1937년 일하시다가
 1937년 여름에 조동되어 원종변강 교육부 시학으로
 한인 강제이주 시작전까지 일하시다가, 강제이주를
 인하여 개사노 공화국 그스도파시에 도착하여 한인

사대내 고공학원 교수직임으로 일하시다가, 1938년 2.
부터 사대 추물학부 상급 수탁 교원으로 1942년 8월
15 일까지 일하시었다. 이시기는 소련의 전쟁시기, 전체
소련연민들은 추위할것없이 피생노롭게 살아가는 시기였다.
안운경 가정에는, 10여명 식구가 허전 한듯 없는 시
내에서 아주 극 빈하게 살아가게 되었다. 10여명 식
구에 2명이 일하였지만 도시배급 생활에 대로는
가타에 밥필을 쌓어 없어 죽도 배아 배아 하였다. 이런
형편에서 안운경 선생은 가정을 버리고 농촌에 나가
일할것을 결심하였다. 그리하여 1942년 새 농기부
회는 깡을온다주, 신평구역 "선봉" 협동 조합 내에 있는
고공학원 수탁 교원으로 일하시면서 살림집 옆에 있
는 옥전 허전을 제외하고는 약 15평 정도의 배밭
도 배정받아 12명의 가족이 유지하여 값은
도시에서 농촌에 나오니 물과 공기가 잘 맞지 않
던 노후한 북모넛트라 어린아이들이 알키를 시작
하여 일년내에 나 식구가 감소 되었다. 그러나
안선생의 가정은 허투무하여 여기에서 1949년
학연드가 종말될때까지 살게 되었다. 이 당시
에 모스크바 시 소련 내무성에, 이전에 원공에서
부터 아주 친밀히 잘 알고 있던 조동규가 일하게
되었던바 그의의 주선으로 인하여 안선생은
사소공화국 내무성을 통하여 1949년 9월 2일
에 모스크바 시로 전근하게 되었다. 안운경 선

생은 사전에 조종권 선생과 전화 연락도 있었지만 3.

와 같이 1949년 9월 5일 북한 소련국제북
한 대사관 흥익관으로 일하게 되었다. 그 후 3년이
지나간 후 안원경 선생은 북한 대사관 1등서기
관으로 승급되었다가 1953년 4월에는 1등서기
관으로 승급되었다. 안원경 선생은 본래 성씨가 타국
문물하고, 말씨가 상당히 두툼 사람이다. 좀 노을 일이
있어도 참이기면서 화내는 법이 ~~없~~이어서 ~~말~~을 볼소리
놀이서 욕할 줄 모르는 진짜 선비였다.

1954년 8월말에 북한 외무성 동화애 의하여
평양에 전가족이 이주하여 가게 되었으며, 안선생
은 1954년 9월 1일 북한 외무성 제일부, 부장으로
일하게 되었다. 1956년 초부터는 북한 인공공화국 전
역에는 벌써 사상검토나 입이 벌려 고르게 각분야에서 전
행리전 시기여서, 처음에는 남한, 다음 중국 연안과
내공에는 집행과나, 소련파나 하나로 배하검없이 모조
러 잡고, 두드리고 하는판에 그기중에 안원경 선생도 발
서 걸리게 되어 처음에는 1956년 말에 경세 대학 홍신
학부 부총장으로 배물었다가, 계속되는 사상검토에 계속
배관하다가 1959년 초에는 홍신학부에서 완전히 배물
아 철거하여 무직(無職)으로 일하게 되었다. 이렇게 일차의
에서 내어 보내서도 계속 사상검토회의에 참가하게 하였으
며 각방면으로 주목을 돌리면서 조사를 하곤 하였다. 사상
검토에서 기본적으로 내어걸고 야절을 대하여 솔직하게
자기 배관을 하라는 목적은 소련과 공파주의요, 또는 소련파
가족주의로서 소련으로 부어 주는 지시를 받고 조선에 나왔

으며, 또 조선에 나와서는 누구-누구에게서 지시를 받았으며 어떤 위임들을 실행하였는지 전부다 털어 놓고 말하면 일체로 회복 식하고 모든 병에로 회복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백주에 한 일이 없는것을 내어놓고 지체 하라고 하는 때일같이 기가 막히었다. 안선생의 성씨는 누구의 집에 가련지 누가 못지 않는 말은 하지도 아니하여서, 또 붉은날에 대답도 이쪽 간간 명료하게 아무런 수식어로 보낼것이 없이 대답하였다. 당시

환경에서 안선생은 일에서 활적되다보니 붓은 일권도 하지 못하고, 또 계급은 따라 배급을 정한지라 인제는 의무성복장 급비급에서 사상검찰에 걸려부적업으로 된 원이 말다급제급을 받게 되니 법은 예사르없이 죽로 처방이 부족한 양식을 가지고 8명의 아이들과 두 어른, 합 십명의 식구가 어떻게 살아갈 획책이 전혀 보되지 않았다. 때를 에 끌어 죽어르 쓰련에 들어가서 죽는것이 한당하다고 생각할 필골에 쓰련 귀국 허가 청원으로 당중앙 위원회에 제출하였으나 매일같이 아무런 회답도 없었다. 조선측 답에, 사람이 고되게 누구를 기다리던가, 또 결심한 일이 제대로 해결되리 아니하는 경구에는 <구곡간 장어> 씌는다고, 사실 다수경우 간강이 잘못되여 알라연에 걸리던가 내장 이르기 관에 얹어 생기는 법이다. 때를 에 만은정 선생도 어디에 별워 특한이 들어서 안고 시작하였다. 사상검찰 위원회는 시간을 아득히 연장하여 안선생에게 안전을 안키면서 사상적 매질로 하였으나 따듯것도 나도지 아니하여 1960년도 가을, 즉 근 일년 가까이 고생하다가 쓰련에 귀국허와는 허가가 나와

1960년 말에야 소련으로 귀국하여 모스크바에 도착 5.
하게 되었다. 도착 이후 직업문제와 식혜문제는 해결받았
으며, 새 직장에, 즉 건설관타국 행정관리 책임자로
얼마 일하지 못하고 계속 병환에 계시다가 1964년
4월 17일에, 57세를 일기로 하고 모스크바에서
세상을 떠나시었다.

안윤경 선생은 소련의 위대한 조국전쟁시기에 그
주요한 환경에서 열성적으로 국가사업을 하였기에
두개의 메달을 받았으며, 1948년에는 선생 40주
년에 축하하여 "영예" 훈장을 수여 받았다.

안윤경 선생은 소련에 계시시에 열병 비당했으며
게시다가 1954년에 조선에 나가서야 최두영 부장
이별 다른성들에게서 관리국장직인에 어찌 비당
원이 어원적부에서 일하셨다가 하여 사회적 제압
하에서 1954년 12월 30일에 조선 노동당에 입당
하셨었다. 그는 조선에 나가 일하시면서 조선의
사회제도와 노동당조직들의 생활 지도 양식이 비록
에 잘 맞지 않으나 맞이할 2어나오는 날까지 조선국
적을 받으라는 권고를 접수하지 아니하고 소련국적
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귀국하셨다. 이 문제가 또한 사
상검찰 시기에 중요한 책임 국공문제 중 하나를 리하여
고생하시다가 자기 생각대로 소련에 귀국 하셨었다.
안윤경 선생은 사망하시 여든 6형제와 딸 2 형제
합 8남매를 남기고 돌아가시었다.

이제 안윤경 선생의 자서전을 여러 가지로 해서 아시하면
다들 땀을 기록하는 흥동산 여사의 자서전을 읽어
보면 안선생의 자서전외에 당시 북한 사정을 잘 알 수 있을 것
이다.

1998. 10. 15. 장영웅